

목 차

논어 論語	1
1. 학이 學而	1
2. 위정 爲政	6
3. 팔일 八佾	12
4. 이인 里仁	20
5. 공야장 公冶長	25
6. 용야 雍也	33
7. 술이 述而	41
8. 태백 泰伯	50
9. 자한 子罕	56
10. 향당 鄉黨	64
11. 선진 先進	72
12. 안연 顏淵	82
13. 자로 子路	92
14. 헌문 憲問	102
15. 위령공 衛靈公	115
16. 계씨 季氏	124
17. 양화 陽貨	131
18. 미자 微子	140
19. 자장 子張	146
20. 요왈 堯曰	153
대학 大學	157
중용 中庸	170

(가) 학이學而

1) 《논어論語》는 각 편의 첫 머리에 나오는 글자를 따서 편명으로 삼았다. 이 편篇은 이 책의 머리편이 된다. 그러므로 기록한 내용이 근본根本을 힘쓰는 뜻이 많으니, 바로 도道에 들어가는 문이요 덕德을 쌓는 터전이니, 배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1.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면 군자君子답지 않겠는가.”

2. 공자의 제자 유자有子가 말하였다.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무니,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난亂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다.

2) 군자君子는 근본根本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道가 생기는 것이다. 효孝와 제悌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은 어진 이가 드물다.”

4.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로 자신을 반성하니, ‘남을 위하여 일을 피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귀면서 진실하지 않았는가, 진수傳受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이다.”

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전차 천 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규모의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공경히 처리하고 미답게 하며, 씩씩이를 절도 있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알맞은 때에 부러야 한다.”

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弟子는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恭遜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仁한 사람과 친해야 하니, 이를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7. 공자의 제자 자하子夏가 말하였다.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여색女色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뀌서 하며, 부모父母를 섬기되 있는 힘을 다하며,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바치며, 벗과 사귀되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평하겠다.”

8.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가 중후重厚하지 않으면 위엄威嚴이 없으니, 중후하지 않으면 배움도 견고하지 못하다.

3) 충忠과 신信을 주장하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삼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9.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초상初喪을 신중히 치르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상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德이 후하게 될 것이다.”

10. 공자의 제자 자공子禽이 자공子貢에게 물었다. “공자께서 이 나라에 이르시면 반드시 그 정사政事를 듣게 되는데,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준 것입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4) “공자는 온순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겸소하고 겸양함으로써 얻으신 것이니, 공자의 구하심은 다른 사람의 구함과 다름 것이다.”

1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관찰할 적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의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아버지의 도道를 고치지 말아야 효孝라 말할 수 있다.”